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초청 시니어리서치펠로우로서 보스톤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공부하게 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케임브리지 케네디스쿨 옆 찰스호텔에서 인터뷰 후 포즈를 취했다

케네디스쿨이 초청한 박영선 "한국 정치는 아직 마차를 타고 있다"

시니어리서치펠로우, 케네디스쿨에서 1년간 디지털 민주주의 공부 국민들이 공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로 정치과정 투명하면 G5 도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도 의 조명을 받았던 박 전 장관.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또 정치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기자는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늘 오늘 인 같지 않은 정치인이다. 언론인으로서 최고 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정치를 해왔다” 고

답했다. 정치가 전쟁터였다 말로 들렸다. 비록 전쟁터에서 살아 남았지만 상투적으로 소위 ‘정치인’ 이라는 수사에는 잘 들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다. 그래서 권력의지를 제대로 내비쳐야 하는 한국 정치계에서 언론계에서만 각광을 받지 못한 것일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보였던 그가 지난해 서울시장 선 >>6면으로 계속

42대 매사추세츠 한인회, 한인들에 첫선 보인다

한인회 출범 이후 첫 자체 행사로 총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영수)는 3월 4일 오후 3시부터 렉싱턴에 위치한 성요한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며 첫선을 보인다.

이번 총회는 장영수 신임회장이 취임하고 개최되는 첫번째 행사로 한인회 임원진과 이사진이 소개된다. 한인회는 그동안 임원을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2023년 한인회 사업에 대해 고민해왔다.

이번 총회에서 다루는 한인회 재무 감사보고, 사업보고 등은 앞으로 2년 동안 한인회의 활동을 미리 들여다 볼 수 있는 첫번째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한인들이 지켜보고 격려와 조언을 전달한다면 한인회는 도약의 힘을 얻을 수도 있다.

한인회는 “2023년에는 더욱더 화합하고 2, 3세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 >>3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미술관에서 2월 2일 열린 음력설날 축제에서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는 한국전통예술원의 이한나씨

한국전통예술원 앙상블 보스톤 미술관에서 데뷔 연주

2월 2일 보스톤 미술관 음력설 축제에서 현대 국악 선보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원기자 = 지난 2월 2일(목) 보스톤 미술관에서 개최된 음력설 축제에서 한국전통예술원 앙상블(BAKTA Ensemble)이 한국 전통음악에 재즈가 가미된 현대적인 국악을 선보였다.

앙상블에는 조미나(작곡/피아노), 김경선(가야금, 장구), 김유나(아쟁) 씨가 참여해 '달맞이',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의 창작곡과 편곡 작품을 함께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한나씨는 전통 무용 '한량무'를 선보여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공연은 지난 해 10월에 출범한 한국전통예술원(Boston Academy of Korean Traditional Arts)의 첫 번째 공식 연주다. 보스톤 미술관의 초청과 주보스톤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유기준 총영사는 행사를 방문하여 미술관 관계자들과 관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연주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전통예술원의 디렉터인 조미나 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활동을 계속해 온 한국 음악인들로 구성된 이 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전

통 예술을 현대화하고 국제화할 것 인지를 관객들과 나눌 수 있어서 뜻 깊은 자리였다" 고 전했다.

텍사스에서 보스톤을 방문하던 중에 공연을 관람한 알렉스 도안 씨는 "훌륭한 연주였다. 이 콘서트를 통해 전통 문화가 보존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현재 한국전통예술원은 2월 말에 시작되는 봄 학기를 위해 온라인 등록을 받고 있다. 등록 마감은 2월 18일(토)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등록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gii.org/bakta.html>).



(왼쪽 위부터) 줄리김, 그레이스리, 하워드고, 샘현, 저스틴강

보스톤 가장 영향력있는 아시안에 한국계 5명 줄리김, 그레이스리, 하워드고, 샘현, 저스틴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의 홍보업체 콜레트필립스커뮤니케이션이 최근 선정한 보스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안 인사 100여명 리스트에 한국계가 5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0명은 지난 1월 31일 보스톤과온데이션 오피스에서 트로피를 수여 받았다.

보스톤에서 영향력 있는 50인 리스트에는 보스톤 제약업체 다케다의 미국법인 사장 줄리김과 M&T뱅크 동부매사추세츠지역 사장인 그레이스리 씨가 이름을 올렸다.

줄리김 사장은 지난 2022년 초 사장으로 승진됐으며 다케다가 인수한 렉싱턴 소재 제약회사 사

이어에서 일했던 베테랑이다. 그레이스리 M&T뱅크 사장은 과거 매사추세츠 재무차관으로 근무했다.

또한 25명의 전설, 리더, 선구자 리스트에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교 교수인 하워드고 박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니얼 고 전 보스톤시장 비서실장이자 앤도버 지역 행정관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팬데믹 동안 보스톤 언론의 주요 인터뷰 코멘터였다.

또한 떠오르는 커뮤니티 리더 리스트에는 샘현(현효신) 보스톤시 연방정부업무 디렉터와 저스틴 강 비저블핸즈 공동창업자이자 제너럴파트너가 포함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한인 단체, 렉싱턴서 열린 음력설날 행사서 한국 설날 알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렉싱턴 한인 단체 코렉스(Korean - American Organization of Lexington, KOlex)는 렉싱턴 음력설날(Lunar New Year)행사에 참여 한국인의 설날을 알렸다.

코렉스 회원들은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음식팀, 비음식팀, 문화팀 세팀으로 나눠 서로 활발히 의견을 나누며 2달 여에 걸쳐 행사를 준비했다.

렉싱턴 센터에 위치한 캐리메모리 열흘(Cary Memorial Hall)에서 1월 22일 열린 행사에서 음식팀은 김밥, 잡채, 치킨강정, 꿀떡, 식혜 등 한국의 음식과 음료를 소개하였고, 비음식팀은 한복, 댕기, 복주머니 등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카드 및 청사초롱 책갈피, 태극무늬 수세미 등의 기념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 하였다.

또한 문화팀은 케이팝 영상 방영 및 한국과 설날에 관련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전통놀이, 한글쓰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SLC(KOlex Student Leadership Council) 학생들도 한 마음이 되어 각 팀에서 봉사하며 한국 문화를 알렸다.

공연 시작 전 각 단체장의 소개 시간엔 코렉스 대표로 참여한 양희영 회장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하였다.

공연장 밖에서는 전통 혼례복을 입은 코렉스 봉사자들이 방문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한국과 한복, 설날에 대한 질문에 친절히 답변했다. 최근 케이팝, 드라마 푸드 등의 인기를 반영하듯 젊은 미국인 참가자들은 한국말로 질문하며 코렉스 회원들이 준비한 음식과 기념품들을 구

매하기도 했다. 양희영 회장은 "렉싱턴 중국인협회(Chinese American Association of Lexington), 렉싱턴히스토리컬소사이어티 등의 타운의 여러 단체들과 공동주최해 음력설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기쁘다" 며 코렉스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올해로 창립 8년째 되는 코렉스(KOlex)는 렉싱턴 타운과 렉싱턴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렉싱턴에 거주하는 한국인 모임으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타운 공무원 및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렉싱턴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렉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koalex.org)나 Facebook(koalex로 검색)에서 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회들 연합 3.1절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3개 한인회와 보스톤 총영사관은 공동으로 104주년을 맞는 3.1절 기념 행사를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렉싱턴에 위치한

성요한교회에서 개최되며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줌 ID는 785 059 1183이다.

3.1절 행사관련 질문은 매사추세츠 한인회 임원 (nikkieh-park@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 한인회 신년하례식 18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회장 박선우)는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에서 2023년 신년하례식과 겸한 한인의날 선포식을 개최한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해마다 신년하례식에는 한인들과 주요 단체장들을 초청해 떡국을 함께 나눠왔다. 특히 올해는 보스톤 노인회를 초대하여 오찬을 함께 나누

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문의는 박선우 회장(603-767-1356)에게 할 수 있다.

일시: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25 Dearborn Road, Greenland, NH 03840

bostonkorean@hotmail.com

42대 매사추세츠 한인회, 한인들에 첫선 보인다

▶▶1면에 이어서 시어 한인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포부와 당부를 동시에 전달했다.

이날 총회 전 2시에는 매사추세

츠 한인회를 비롯한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한인회와 보스톤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3.1절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2월부터 천연가스 난방비 가격 인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공공전기가스사업부가 2월 천연가스의 소비자가를 인하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천연가스 비용은 다음 청구서부터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사업부는 2월 1일부터 평균 가정당 월 천연가스 요금에서 약 4-5% 정도 인하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천연가스 공급사인 내셔널그리드는 평균 소비자들의 경우 \$11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에버소스는 가정당 \$33이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베카 테퍼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인하조치가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다만 “이는 변동이 극심해 우리 주 재정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와 가스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급격하게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 가정은 지난 겨울보다 천연가스의 경우 28%를 더 많이 내야 하며, 전기 난방과 경유난방의 경우 각각 57%, 63% 더 오른 가격을 부담했



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매사추세츠 전기가스사업부는 가격의 급등 또는 급락시 “공급요율(supply rate)”을 인하 조치시킬 수 있도록 한 주법에 따라 가격 인하를 명령한 것이다.

전기 요금처럼 천연가스 요금도 공급(supply)과 배송(delivery)으로 분리된다. 공급요율은 실제적 천연가스의 사용에 부과되는 비용이다. 천연가스 유틸리티 회사들은 공개 시장에서 가스를 구입하기에 이 가격의 등락을 소비자에게 직접 반영하게 된다. 유틸리티 회사들은 공급요율이 아닌 배송요율로 결국 이익을 창출한다.

대부분 공급요율은 1년에 2차례 바뀐다. 그러나 시장이 급격하게 오

르내리면 유틸리티 회사들은 과도하게 요율을 부과하거나 너무 적게 비용을 부과하는 문제가 생긴다. 올해 바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기가스사업부는 공급요율 조정을 명령한 것이다.

독자들은 각자의 천연가스비 요금표에서 텀스(thems)란 단위로 표시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정부는 가스공급요율을 에버소스의 경우 현재의 텀(them) 당 \$1.04였던 가격을 \$0.78로 내셔널그리드의 경우 현재 텀(them) 당 0.99였던 요율을 \$0.89로 낮추도록 명령했다.

만약 향후 천연가스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이번 조정된 가격은 5월 1일까지 지속된다.

hsb@bsotonkorea.com



워싱턴마운틴 정상 사상 최저 온도 기록 화씨-47(섭씨-4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높은 지대인 워싱턴 마운틴 꼭대기 정상온도는 7일 아침 5시 사상 최저인 화씨 영하 47도(섭씨-43)를 기록했으며 체감온도는 최대 화씨 영하 110도에 달했다.

워싱턴 마운틴 관측소의 기상학자 알렉시스 조지씨는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정상의 온도는 아침 -47F로 사상 최저 온도를 기록했다. 바람은 시속 100-115마

일, 순간 돌풍의 속도는 135마일로 체감온도는 화씨 영하 110(섭씨-78.9)도에 달했다”고 적었다.

조지씨는 “이 같은 추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처럼 혹독한 추위 상황에서는 저체온증과 동상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 추위는 빠르게 체온을 빼앗아가며 1분내 노출된 피부에서 동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hsb@bsotonkorea.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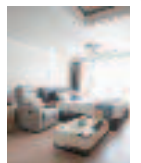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주)제이투케이임피니
협력업체



60여년 만의 기록적 추위 매사추세츠 수천명 전원 끊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기록적인 한파와 더불어 그레이터 보스톤 수천가구 주민들은 단전의 어려움까지 같이 겪게 됐다. 기상청은 4일 오후 1시까지 한파주의보를 발령해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관 랍 메기나씨는 “밖에 있어도 너무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혹독한 추위에서는 동상이 입게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고 말했다. 로건 공항은 4일 이른 아침 화씨 -10도(섭씨 -23도)를 기록해 2월 4일 하루 최저인 1886년 기록을 넘어섰

다. 또한 보스톤이 화씨 영하 두자리 숫자를 넘어선 것은 1957년 1월 15일(화씨-12도) 이래 처음이다. 메기나씨에 따르면 보스톤의 사상 최저는 1934년 화씨 영하 18도였다. 보스톤과 함께 우스터와 프로비던스도 2월 4일 사상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 우스터는 화씨 영하 13도였으며 프로비던스는 화씨 영하 9도였다. 매사추세츠에서 4일 최저 기온은 이스트 홀리(East Hawley)로 화씨 영하 22도였다. 4일 오후 1시께까지 주내에서는 3,400 가구에 단전사태가 발생했다.

매사추세츠재난관리청(MEMA)이 밝혔다. MEMA는 쉘터가 필요한 경우 211으로 전화해 대피할 것을 권장했다. 4일 낮 시간 동안 전기회사는 단전 복구 작업에 한창이며 특히 웨스트우드(Westwood, MA)는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전선을 덮쳐 1천100 가구의 전원이 끊겼다. 보스톤시는 청소년가족센터를 열어 임시 쉘터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보스톤시에 따르면 약 2,600여명이 보스톤시의 쉘터로 입주했다. hsb@bsotonkorea.com



살인적 추위 보스톤서 도보로 집 향하던 40대 여성 사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토박이인 노스엔드 거주 여성이 57년만의 혹독한 추위가 보스톤을 덮쳤던 5일 새벽에 도보로 집으로 향하다 사망했다. 멜라니 디베스타(47)씨는 4일 밤 동생인 브라이언 디베스타씨와 코메디쇼를 보러 갔으며 이후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친구를 만나고 다시 노스엔드에 위치한 아파트로 향했다. 화씨 영하 -10도의 날씨였기에 브라이언은 자신의 누이가 우버를 탈 줄로 예상했다. 그러나 디베스타씨는 친구 집에 갔었을 때와 달리 집으로 향할 때는 우버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WCVB 뉴스가 보스톤 경찰의

보고서를 확인한 것에 따르면 디베스타씨는 4일 새벽 3시 30분 집에서 약 500야드(457미터) 가량 떨어진 바닷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워터프론트파크의 벤치에 앉아있는 것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고 추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생 브라이언 디베스타는 “아마 이 거리는 이미 수천번도 더 걸었던 곳이다. 노스엔드에서 25년 넘게 산 보스톤 토박이” 이라고 그는 말했다. 보스톤은 2월 3일밤 기록적인 화씨 -8도까지 떨어졌으며 자정을 넘은 4일 새벽 5시 15분에는 화씨 -10도 체감온도는 화씨 -35 이하였다. hsb@bsotonkorea.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케네디스쿨이 초청한 박영선 "한국 정치는 아직 마차를 타고 있다"

▶▶1면에 이어서

거에서 패배한 것도 그 연장선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무언가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으로 묘사되는 것을 불편해 했다.

1월 13일 보스톤에 도착해 케네디스쿨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한 박 전 장관은 벌써 학업에 흠뻑 빠져있다. 한국과 지표상 반대점에 가까운 먼 거리와 14시간의 시차로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도 그의 학업은 정치적 비전을 새롭게 가다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민주주의다. 과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오픈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탈 중앙화된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이 비전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해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 세계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이는 곳인 케네디스쿨은 박영선 전 장관을 시니어리서치 펠로우(Senior Research Fellow)로 초청했다. 케네디스쿨은 2017년 헬시 매닝 논란 이후 펠로우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케네디스쿨이 한국의 중견 정치인을 시니어리서치펠로우로 초청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박진 외무부 장관 등은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대학원 과정을 수학했다.

60년만에 가장 추웠던 한파가 보스톤을 강타한 다음날인 2월 5일 케임브리지 찰스호텔에서 박 전 장관을 만났다. 박 전 장관과 케네디스쿨, 언론인 생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의 정치, 보스톤에서의 삶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1문1답이다.

▶학업을 위해 보스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언제 도착했고 보스톤 생활은 어떤가?

1월 13일 도착했다. 보스톤에는 몇번 와봐서 낯설지는 않은데 보스톤은 뉴욕 워싱턴과 다른 점이 있다. 옛 것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

어서 다른 느낌을 준다. 보스톤에서는 유학생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차가 없다. 지하철은 타봤고 버스를 아직 못 타봤다.

▶케네디 스쿨 학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케네디 스쿨의 애시센터에서 CSIS 수석 고문으로 있을 때 보스톤을 몇번 방문했었다. 그때 한번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초청장이 왔다. 그래서 결정하게 됐다.

▶케네디 스쿨에서 시니어리서치펠로우십을 하는데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되는지?

디지털 데모크라시에 관련된 것을 좀더 들여다 보고 싶다. 그런데 그 과목이 많지 않다. 디지털 정부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봄학기부터 들을 예정이다. 현재는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과 월남전에 관한 책을 써서 플리처 상을 수상한 프레드릭 로가발 교수의 "과거로부터의 추론" 이란 과목을 듣고 있다.

수업이 너무 재밌고 인상에 남았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에 연재하고 있다. 폐북을 팔로우하면 제가 공부하는 것을 아실 수 있다.

▶트위터 팔로워가 약 347,000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이다. 일론 머스크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며 트위터를 인수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돈과 명예와 자유(언론)가 한바구니에 들어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도 언론재벌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데, 그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은 썩 잘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왜 트위터를 인수했는지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비록 과거 트위터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기는 하지만 SNS도 디지털 시대의 언론인데 세계의 1, 2위



의 부자가 언론을 소유하는 게 맞느냐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MBC에서 기자생활 후 정계에 입문했다. 이 같은 선택을 돌이켜 볼 때 지금이라면 같은 선택을 하겠는가?

기자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정치는 뭐랄까 우연히 다가온 일이었다. 기자로서의 삶, 정치인으로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기자로서의 삶은 항상 목표가 있었다.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오늘이 매일매일 마지막이다' 라고 살았다. 장단점이 있었다. 매일매일 마지막이다라고 살다보니 흔하디 흔한 잔머리를 쓰지 않고 뭔가를 (곧게)이야기하고 재벌과 싸우고, 검찰 개혁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2011년, 2021년 두번처럼 서울시장을 갑자기 나가게 되었다든지 생각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도움이 안됐다.

정치인이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살아왔던 정치인 박영선은 사실 속

내가 상당히 다르다. 사람들은 정치인이라면 서울시장,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는 가정을 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괴리를 메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꿔야겠다. 검찰을 개혁해야겠다' 하는 목표는 있었는데 '무엇이 되어야겠다' 는 목표는 없다.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의지, 즉 사람들은 권력욕이 약하다고 하면 지금도 믿지 않는다. 그게 힘들다. 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꼬리표를 달고 색깔한다. 그런 것이 어떨 때는 참 힘들었다.

▶언론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

서울 모스크바 위성 생방송, 한소 수교전에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한달동안 MBC 탐뉴스에서 10분동안 매일매일 소련의 붕괴과정과 글라스노스트, 페테스트로이카, 고르바초프의 그 현장을 전했던 그 때는 지금 생각해도 짜릿하다.

▶▶7면으로 계속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이재명 대표에는 "공천권 내려놓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선언 한다면 민주당 지지율 올라갈 것"

▶▶6면에 이어서

서울 평양 위성 생방송 첫번째 앵커, 역사에 남는 한소 수교전에 중국을 들어간 첫번째 기자, 러시아 수교 전에 정식 비자를 받아서 들어간 첫번째 기자, LA 특파원 시절 쿠바도 정식 비자를 받아서 들어간 첫번째 기자였다. 기자로서는 너무도 많은 행운을 누렸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했을 때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두 귀에 박히는 구호와 탁월한 행정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부 장관으로서 잘했던 일은 또 아쉬운 점은?

스마트 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점을 선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제가 딱 그런 케이스다. 제 인생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그런 것을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경험했다. MBC에 경제부 기자로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거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다. 95년도 LA 특파원으로 왔을 때 미국사람들이 준 명함에서 이메일 어드레스를 처음 보게 됐다. 그때부터 IT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리콘 벨리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실리콘벨리의 탄생을 집중 취재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람들은 주로 제조분야로만 생각하는데 절반이 금융이다. 경제부 기자 시절 증권, 보험 사민금융 등을 취재를 해서 제 2금융권에 강한 사람이었는데 중소기업부가 그 제 2금융권을 잘 다뤄야 하는 부서였다. 이처럼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중소기업부에 다 모여 있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일했었다.

장관이 되고 처음 생각한 캐치프레이즈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그것이 1년 차 캐치프레이즈였다. 두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돌아보면 그때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이

란 캐치프레이즈 속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줬던 것을 굉장히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좀 아쉬운 것은 서울시장 선거를 만나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끝까지 하려 노력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박영선 전장관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미래를 두고 따로 분리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연한 지적이란 반응도 있는가 하면 핵심 지지층에서는 '내부총질'이란 시각이 있는데?

제가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11월 17일 '디지털 대전환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서강대 강연을 했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정치부 기자들이 제가 디지털과 관련돼서 한 얘기를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과 빛대어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그때 기자들의 전화도 많이 오고 방송 출연 요청도 많았는데 거부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저는 미국 케네디 스킴을 올 상황이었기에 욕을 듣더라도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제가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요즘 많이 좋아졌다. 과거에 비해 올해에 하는 메시지가 귀에 쏙힌다. 예를 들어 "내가 대선에 패했으므로 검찰이 오라니까 간다" 라든지, 집회에서 "나를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라" 라는 메시지가 조금씩 귀에도 오르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조금 도움이 됐겠거니 하고 위안을 삼고 있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생각하는지?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검찰도 너무 서둘렀고 쉽게 생각해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이 더 건조하고 냉정하게 다가갔으면 이재명 대표가 더 힘들어 졌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약간 버벅거린다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면 쌍방을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비 대납으로 턴을 한다면 대장동 같은 것도 현재로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브레이크 없는 벤처처럼 달리다 발부리에 치인 느낌이다.

대장동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자. 우리나라 지자체 장들이 자기 지자체를 위해서 기부를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한다. 그도를 어느 정도까지 넘느냐의 문제인 거다. 칼로 무 베듯이 딱 잘라 정리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그 증거를 확실하게 찾았다든가 이러면 꼼짝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나 연결고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제3자 뇌물죄 배임이라든지 포괄적인 그런 범죄에 그물을 쳐가지고 가는 느낌, 이렇게 되면 검찰수사가 정의를 위한다기 보다는 한쪽 편에 섰다는 인상을 주기가 쉽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5년동안 계속된 주제였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느낌도 있다. 검찰 개혁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문재인 정부 때 악셀레이터를 너무 세게 밟았다. 마치 5년안에 검찰개혁을 못하면 다시는 못할 것처럼 하다 그렇게 됐다.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무리하다 보면 반드시 역풍이 따른다. 세상의 일이 정반합으로 가는 것


이 순리지 않나. 검수완박이란 단어는 실수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법사위 간사를 했을 때는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주는 데까지 갔었다.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가는데 한 10년 걸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성급했기에 역풍이 불어서 정권이 넘어간 것이다.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적절하게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다음 정권에게 할 일을 조금 남겨놔야 정권은 넘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이른 것 같지만 내년 총선에 대한 예상은? 내년 총선은 몇 달 더 지켜봐야 한다. 국민의 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끝날지 관전 포인트다. 전당대회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왕정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코메디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단계만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나라가 G5로 도약할 것이다.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정치는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다. 당대표가 공천한다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대통령이 공천권을 갖나. 이럴 때 민주당이 우리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선언해 버리면 민주당의 인기가 엄청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왜 그리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법안도 발의했는데

권력을 내려놓지 못해서다. 권력을 쥐면 그 권력이 영원히 갈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화무십일홍이다. 꽃이 열흘을 넘기지 못하듯 권력도 마찬가지다. 권력에 취하면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것 같다.

미국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양당제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오픈프라이머리제도라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당대 ▶▶8면으로 계속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권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케네디스쿨이 초청한 박영선 "한국 정치는 아직 마차를 타고 있다"

▶▶7면에 이어서

표가 없다. 전국 위원회란 곳에서 당원을 받고 의장은 중간에 모더레이터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 힘이 지금 미국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는 과정이 투명하다. 한국은 정치인이 되는 과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헤맨다. 저 역시 정치인이 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졌다고 해야 할 정도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한국에서 정착되기까지는 난제라고 생각하는지?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마음을 비우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앙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을 하면서 당정분리를 실제로 실현했고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치개혁을 이뤘다. 열린 우리당이 처음으로 경선제도를 도입해서 공천을 했다. 그래서 절반의 개혁을 이뤘는데 앞으로 민주당에서 노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나머지 절반의 개혁을 이루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미래 비전으로 디지털 대전환이란 키워드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좀더 쉽게 설명해달라.

백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시절, 미국이 그 변화의 수혜자였다. 인터넷 발달 이후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 가는데 인터넷이 미국에서 개발되고 발전됐지만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다. 한국이 이로 인해서 선진국이 된 거고 국민소득 3만불이 넘어간 거다. 그런데 정치는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 정치분야만 디지털 대전환에 합류하면 한국이 G5 간다.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고 정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디지털 정당을 만들어서 다오 정당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다오정당이라 함은 로마공화정처럼 디지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천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양극단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면 결국 정치도 파멸하게 된다. 중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 최근 양극단의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있어서 다오정당이 출현할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아니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다오정당으로 변모한다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지지율 40%대를 못 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지율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거기에 동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다. 단 6개월만에 대통령이 됐다. 단점일 수도 있지만 남에게 빚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있다. 윤대통령이 그것을 해야 한다. 만약 참된 개혁을 한다면 지지율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그 이유는?

존 에프 케네디다. 이 사람은 미국인들의 가슴에 살아있다. 그 당시 우주시대란 말을 하면서 달 탐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때 지구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 왜 우리가 우주탐사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케네디 연설은 감동적이다. 그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미국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정치인이 비전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번째 쿠바위기를 극복할 때 케네디대통령이 보여준 전쟁



을 피하면서도 '쿠바해상봉쇄' 라는 절묘한 중도적 결단력은 배울만하다고 생각한다. 결단력이라는 것이 정확한 정보와 현실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역사지지를 잘 생각해 반영되면 반드시 강성노자들의 논리대로 하지 않아도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박 전 장관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역시 어려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게 정치의 기본인 것 같다.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은(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달리)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추천하고 싶은 감명 깊은 책 3권?

미국사람이 쓴 책 중에 브레튼우즈 전투(The Battle of Bretton Woods), Benn Steil 이란 사람이 썼다. 결론부분만 다섯번 정도 읽었다. 핵심은 달러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는지에 대해 쓴 것이다. 이것을 읽으면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미래가 보인다. 늘 좋아하는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 그리고 패러다임이란 단어를 처음 쓴 토마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 다. 과학을 전공하

지 않았으면서 과학을 잘 이해하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이 책 덕분이다.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외로울 때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어려움을 뚫고 지금의 박영선 전 장관을 만들게 한 삶의 철학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기자로서 사회부 조리로 힘든 사람들의 가슴을 풀게 해줬다면 정치인으로 했던 재벌개혁 검찰 개혁을 이룬 것도 용기였다. 정치인으로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오게 한 것도 세계는 용기다. 사람들이 이 시기에 왜 미국을 가느냐 말했다. 이 기회 즉 케네디스쿨에서의 시간이 저에게 새로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방전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기 온지 한달되었지만 그 사이에도 많이 새로운 것을 얻었다.

▶가장 좋은 습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5시 또는 5시 반 경에 일어나 한 두시간 안에 그날 해야 할 일을 다 한다. 아침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

editor@bostonkorea.com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1,703 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 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자연이치 지급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보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보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보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III. 신청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접수 및 문의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요가씨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안전하고 쉽게 역자세에 성공하는 방법 - 헤드스탠드 편



요가 동작 중 다양한 도전자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역자세, 즉 머리가 가슴보다 밑에 위치한 자세에서 중심을 잡기까지 상당히 많은 연습과 실패를 겪게 되는데요,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거꾸로 서는 자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도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 혹은 과거 비슷한 자세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두려움에 또 주저하게 되는 경우, 혹은 지나치게 의욕이 앞서다보니 충분한 준비과정을 갖지 못하고 선불리 시도하게 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자세를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 초보자들도 시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쉽게 머리서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에서 오분 순삭요가 챌린지 Day21 머리서기... 편 영상을 찾아 제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1. Knee To Chest (무릎 가슴쪽으로 당기기): 복근, 코어 강화

1단계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반대다리는 길게 펴줍니다.

2단계 배꼽을 등쪽으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내쉬는 숨에 견갑골을 바닥에서 떼고 가슴을



좀더 허벅지 쪽으로 가져갑니다.

3단계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4단계 좌우 반복하면서 코어의 힘을 길러줍니다.

TIP! 목이 불편하다면 고개를 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끌어 당겨주세요.

2. Hamstring Stretch (햄스트링 스트레칭): 대퇴이두근, 다리 뒷면 늘리기

1단계 이번에는 무릎을 펴고 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에서 종아리나 발목을 끌어당겨줍니다.

2단계 다리 뒷면의 뻣뻣함을 느끼며 깊게 호흡합니다.

3단계 반대다리도 바꿔가며 반복하며 두 다리를 최대한 길게 펴는 연습을 해줍니다.

4단계 복부를 수축하며 가슴을 좀더 허벅지 가까이 가져가세요.

TIP! 허벅지 뒤가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허벅지 뒤에 손을 깎지끼고 버티는 연습부터 해주세요.



3. Low Plank + Protraction (로우 플랭크 변형): 머리서기 월업

1단계 네발기기 자세에서 팔꿈치를 어깨 밑에 내려놓고 팔꿈치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넣

니다.

2단계 두 날개뼈가 서로 멀어지게 복부와 갈비뼈를 등쪽으로 끌어당기고 가슴을 매트에서 멀리 밀어냅니다.

3단계 복부의 힘을 유지하며 천천히 두 다리를 펴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영상 참조)

TIP! 팔꿈치의 너비가 어깨보다 멀어져 둘 사이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 두 팔을 서로 중앙으로 조이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플랭크를 준비합니다.

4. Headstand (한발 든 헤드스탠드/두 무릎 접은 헤드스탠드/두다리 편 헤드스탠드): 코어 강화, 어깨 안정화와 체형교정, 전신 디톡스와 다이어트 효과

1단계 플랭크에서 천천히 다리를 앞으로 가져가 머리를 바닥에 댑니다.

2단계 두발을 최대한 앞으로 가져가고 머리에서 가장 튀어나온 정수리에 매트가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3단계 엉덩이가 어깨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복부를 강하게 수축한 상태에서 한무릎을 접어 발꿈치를 엉덩이가 가까이 가져갑니다.

4단계 반대쪽 발꿈치도 들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5단계 벽에 두발을 기대고 버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영상 참조)

TIP! 두 발을 동시에 바닥에서 뗄 수 있을 때까지 사진처럼 한다리씩 바꿔가며 코어와 어깨 안정성을 충분히 길러주고 중심 잡는 연습을 반복해줍니다.

2단계 두발을 최대한 앞으로 가져가고 머리에서 가장 튀어나온 정수리에 매트가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3단계 엉덩이가 어깨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복부를 강하게 수축한 상태에서 한무릎을 접어 발꿈치를 엉덩이가 가까이 가져갑니다.

4단계 반대쪽 발꿈치도 들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5단계 벽에 두발을 기대고 버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영상 참조)

TIP! 두 발을 동시에 바닥에서 뗄 수 있을 때까지 사진처럼 한다리씩 바꿔가며 코어와 어깨 안정성을 충분히 길러주고 중심 잡는 연습을 반복해줍니다.

TIP! 팔꿈치의 너비가 어깨보다 멀어져 둘 사이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 두 팔을 서로 중앙으로 조이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플랭크를 준비합니다.

2단계 두발을 최대한 앞으로 가져가고 머리에서 가장 튀어나온 정수리에 매트가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3단계 엉덩이가 어깨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복부를 강하게 수축한 상태에서 한무릎을 접어 발꿈치를 엉덩이가 가까이 가져갑니다.

4단계 반대쪽 발꿈치도 들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5단계 벽에 두발을 기대고 버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영상 참조)

TIP! 두 발을 동시에 바닥에서 뗄 수 있을 때까지 사진처럼 한다리씩 바꿔가며 코어와 어깨 안정성을 충분히 길러주고 중심 잡는 연습을 반복해줍니다.

TIP! 팔꿈치의 너비가 어깨보다 멀어져 둘 사이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 두 팔을 서로 중앙으로 조이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플랭크를 준비합니다.

2단계 두발을 최대한 앞으로 가져가고 머리에서 가장 튀어나온 정수리에 매트가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3단계 엉덩이가 어깨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복부를 강하게 수축한 상태에서 한무릎을 접어 발꿈치를 엉덩이가 가까이 가져갑니다.

4단계 반대쪽 발꿈치도 들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5단계 벽에 두발을 기대고 버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영상 참조)

TIP! 두 발을 동시에 바닥에서 뗄 수 있을 때까지 사진처럼 한다리씩 바꿔가며 코어와 어깨 안정성을 충분히 길러주고 중심 잡는 연습을 반복해줍니다.

TIP! 팔꿈치의 너비가 어깨보다 멀어져 둘 사이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 두 팔을 서로 중앙으로 조이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플랭크를 준비합니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단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검은 토끼해)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 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차별화된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관련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이슨 전 드림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COMPASS

가구원 중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있다면 마시는 물을 꼭 확인해보세요

수분 공급, 인체에 왜 필수적일까?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6대 영양소 중 수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6대 영양소 중 수분이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수분은 체온 조절, 신진대사 등 일상적인 신체 유지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신체 기관 곳곳의 세포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장 많은 수분을 함량하고 있는 신체 기관은 두뇌인데, 두뇌의 약 8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심장의 경우 약 80%, 폐와 근육의 경우 약 7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의 주요 신체 기관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이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수분 섭취, 왜 더 중요한가?

우리 몸의 체수분 함량은 신생아 시기 80% 수준에서 나이가 들수록 점차 줄어들어 성인기에는

약 60%, 노년기에는 50%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체내 수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권위 있는 영양학술지 Nutrients에 따르면 생후 12개월 이하는 약 0.7L, 1년에서 2년까지는 1.3L, 4년에서 8년의 경우 1.7L의 일일 수분 섭취가 권장된다.

생활 속 물 섭취, 무엇을 꼭 따져 봐야 할까?

세계보건기구(WHO)는 미네랄 함량이 부족한 물을 지속해서 마시는 경우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게 되면 칼슘이나 포타슘, 아연, 철분 요오드 같은 필수 미네랄이 결핍되기 쉽고, 성장기인 태아 및 영유아의 성장 지연 또는 신경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를 장기간 지속해서 마시게 되는 경우 임산부의 조산 및 저체중 출산, 아동 골절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마시고 있는 물의 양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



는지 또한 확인해야 한다.

가정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려면

자연 상태의 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미네랄은 이온화되어 있어 식품 또는 영양제를 통해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가정에서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섭취하는 방법은 미네랄 함유량을 유지해주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

는 대부분의 정수기는 해수를 담수로 바꾸기 위한 필터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걸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용 중인 정수기가 유해 물질을 걸러내면서 미네랄은 보존하는 최신 필터 기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있다면, 가족 건강을 위해 음용 중인 물을 꼭 확인해보자.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경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션원 회원사 | 세한원 회원사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JP모건 CEO "인플레이에 승리 선언하기엔 일러...디폴트는 재앙"

모기지 담당 직원 수백 명 해고...중소기업 담당 내년까지 500여명 채용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월가의 왕'으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굳어질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근 미국의 1월 노동시장 지표가 호황으로 나타나자 지난 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과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 고위 인사들도 시장 전망보다 금리를 더 올리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연준이 금리를 5%까지 올린 뒤 이를 유지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물가상승률이 3.5%나 4%로 내려와서 유지된다면 "기준금리는 5% 이상으로 높아져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단기·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6.5%로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는 연 2%다.

미국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다이먼 CEO는 만약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아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겪는다면 잠재적 재앙이 될 것

라고 우려했다. 그는 "디폴트는 있을 수 없다"며 디폴트가 미국에 영구적 손상을 야기하고 미래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의회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을 통해 부채한도 인상을 촉구했다.

한편 JP모건은 중소기업 담당 직원 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반대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담당 수백명은 내보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JP모건은 내년까지 중소기업 담당 직원을 500명 늘려 해당 업무를 맡는 직원은 현재 2천300여명에서 20% 늘어나게 된다.

벤 월터 JP모건 기업금융 부문 CEO는 "중소기업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비용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인력 채용은 "경기순환기 동안 이들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JP모건은 또 모기지 담당 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대변인은 로이터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사업과 고객 요구 사항을 살펴보고 직원 채용을 조정한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채용을 늘리고 적절한 경우 일자리를 줄인다"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다른 월가 은행들의 감원에 따른 채용 계획 관련 질문을 받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며 "담당해야 할 고객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미국 월가 대형 금융기관들은 최근 대규모 감원에 나선 바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경영자

미국인 절반, 1년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인식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인 절반이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지난해와 비교해 더 나빠졌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UPI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2~22일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경제 상황이 1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35%, 나빠졌다고 대답한 사람은 50%였다.

1976년 갤럽 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번처럼 미국인 절반 이상이 자신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본 경우는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뿐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률과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각각 41%로 똑같았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운데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61%, 더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26%였다. 중간 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각각 49%, 37%였고 고소득층은 43%, 39%였다.

다만, 높은 물가상승률 등에도 앞으로 사정에는 낙관론이 많았다. 1년 뒤 자신들의 경제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60%,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28%였다.

kjw@yna.co.kr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美 "中 정찰풍선에 정보수집 다중 안테나...배후는 중국군"

"통신·위치 정보 수집...기상기구 탑재 장비와 일치하지 않아"
"중국군, 제조업체 승인 등 직접 관련...업체 등에 조치 검토"
"5대륙 40개국 이상에 정찰풍선...美의 안보와 동맹에 위협"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현 특파원 =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정보수집을 위한 정찰풍선을 보냈다면 중국군이 배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5개 대륙의 40개국 이상에 고고도 정찰풍선을 보냈으면서 풍선 제조업체 등 미국의 영공 침입을 지원한 중국군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찰풍선 침투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 대한 공중정찰 프로그램의 배후에는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정찰풍선 제조업체가 중국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본토에 침투한 중국의 정찰풍선이 정보수집용으로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4일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했고, 중국은 민수용 비행선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미군 U-2 정찰기의 고해상

이미지에 따르면 침투한 풍선은 신호 정보 수집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풍선의 장비는 분명히 정보 정찰용이었고, 기상기구에 탑재되는 장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기상관측용 민간 비행선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정찰풍선에는 통신을 수집하고 지리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다중 안테나는 물론 다중 능동 정보수집 센서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태양광 전지판이 장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우린 중국이 이 풍선을 정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정찰 작전을 수행하려 개발된 중국 풍선 선단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활동은 중국군의 지시로 종종 수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식 조달 포털에 게시된 정보를 보면 정찰풍선 제조업체가 중국군과 직접 연계돼 있다"며 "군이 승인한 업체"라고 설명했다.



미 해군이 7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해군 폭발물처리반 소속 장병들이 지난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앞바다에서 중국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하는 장면.

하원 '중정찰풍선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해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의 동의로 중국 공산당이 미국 영공에서 고고도 정찰풍선을 사용하는 것을 미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이 정찰 풍선에 대해 가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비

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 중국의 정찰풍선 탐지 시간부터 격추 시점까지의 시간 대별 상황과 중국이 잠재적으로 확보해서 송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찰 정보, 풍선을 활용한 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회에 지속해서 보고할 것도 촉구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이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클 매콜(공화당·텍사스) 하원의원은 토론에서 "그들이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하며 그것은 힘"이라면서 "우리의 적들은 미래에 스파이 풍선이나 다른 수단으로 미국 영공을 침입할 경우 결정적인 무력(force)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7일 국정연설 전에 중국 정찰풍선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느장 대응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180일 안에 결론 내야

오늘 중주심 선정...적시 처리 사건으로 집중 심리 전망

재판관 2명 퇴임 영향 적을 듯...위법 중대성·파면 필요성 쟁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돼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하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일종의 '비상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은 2~3개월(노무현 전 대통령 64일·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만에 처리돼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다른 헌법재판에 비해 일찍 결론이 도출됐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번 탄핵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다.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 활용됐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린다고 하면 띄엄띄엄 잡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잡아 집중 심리하는 주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9명 중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사건 심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데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곧장 임명한다. 전·후임 교체기라 해도 헌재법상 재판관이 7명 이상 있으면 사건 심리가 가능해 헌법재판 절차가 중단될 여지도 크지 않다.

앞으로 열릴 변론과 재판관 평의에서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과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오가게 된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이 장관에게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과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다. 헌재의 기존 판례는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면 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과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공직자는 과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과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xing@yna.co.kr

이재명, 2차 출석 하루 앞 조사 대비 주력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차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질문지를 점검하며 막바지 준비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1차 소환조사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1차 조사에서 검찰은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위례·대장동 사업 기간이 길어

조사 분량은 방대한데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출석했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8시간 정도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10일 2차 조사에서 위례·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민관 유착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묵인했는지 추가 보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이 일부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FEB 10th - FEB.16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I LOVE YOU BERRY MOCHI!

No need for cupid when you can capture hearts with soft, delicate strawberry mochi this Valentine's Day!
H 마트와 함께 준비한 딸기 찹쌀떡으로 발렌타인 데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p>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p>	<p>Mango 망고 BOX \$9.99</p>	<p>Malanga 말랑가 LB \$1.29</p>	<p>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p>	<p>Korean Singo Pear 한국 신고배 BOX \$34.99</p>
<p>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p>	<p>Seedless Green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p>	<p>Ginger 생강 LB \$1.9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p>	<p>Sweet Potato 고구마 LB \$2.49</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7.99</p>	<p>Fresh Ox Tail 생 소 꼬리 LB \$11.99</p>
<p>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p>	<p>Fresh Chicken Drumstick 생 닭다리 LB \$1.49</p>
<p>Frozen Beef Short Plate 냉동 소 삼겹 양지 SLICED/LB \$10.99</p>	<p>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7.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BIG SALE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S/LB \$12.99</p>	<p>TONGTONGBAY Salted Spanish Mackerel/Atka Mackerel/Mackerel Fillet 통통배 맛있는 자반 삼치/임연수/고등어 11-13 OZ/PKG \$6.99</p>
<p>Frozen Lobster Tail 랍스터 꼬리 4 OZ/EA \$9.99</p>	<p>OHGWANG Dried Pollock Fillet 오광 구운 명태포 3.5 OZ/PKG \$5.99</p>
<p>HWAWOODANG Frozen The Original Gunsan Squid Seafood Stew 화우당 군산 통오징어 해물탕 42.3 OZ/PKG \$13.99</p>	<p>FRID/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Fresh Spanish Mackerel 삼치 LB \$4.99</p>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 HAITAI Daipoong 100% Korean Premium Cooked Rice 해태 대풍 소반 백미밥 7.4 OZ X 12 EA/BOX \$12.99</p>	<p>H MART SMART CARD ONLY SAMYANG Samyang Ramen 삼양 삼양라면 4.23 OZ X 20 EA/BOX \$16.99</p>
<p>H MART SMART CARD ONLY GOMPYO Co-Brand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3.99</p>	<p>H MART SMART CARD ONLY TTL Cooking Spirits Michiu TTL 맛술 25.3 FL OZ \$5.99</p>

<p>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유기농장 유기농쌀 15 LB \$50.99</p>	<p>JINGA Abalone Porridge 진가 전복죽 14.8 OZ X 3 EA/BOX \$10.99</p>	<p>CHUNG 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7.05 OZ \$6.99</p>	<p>HAI0 Premium Roasted Seaweed Green Laver Gift Set 해오름 도시락김 선물세트 0.15 OZ X 24 EA/BOX \$7.99</p>	<p>HAI0 Seasoned Bean Paste Ssam-jang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1.1 LB \$2.99</p>
<p>THREE CRAB BRAND Fish Sauce 삼계상표 순 멸치 액젓 24 FL OZ \$5.99</p>	<p>PULMUONE Jjamppong Noodle Soup Kit 풀무원 직화 짬뽕 12.8 OZ \$5.99</p>	<p>RAW NATURE Red Bean 자연담은 붉은팥 4 LB \$12.99</p>	<p>SUNGGYUNG FOOD Pepper Chips 성경식품 고추부각 2.12 OZ 2\$5</p>	<p>YOODONG Canned Mackerel 유동고등어 캔 14.1 OZ \$1.99</p>
<p>GLICO Chocolate/Strawberry Pocky 글리코 초콜렛/딸기 포키 4.48 OZ X 9 EA/PKG \$2.99</p>	<p>MAEIL Biofeel Yogurt 매일 요구르트 PLAIN - 2.19 FLOZ X 25 EA/PKG \$4.99</p>	<p>KüHAUS Health Care Electric Foot Massager 쿠하우스 헬스케어 발 마사지기 -\$99.99 \$74.99 GRAY/PINK EA</p>	<p>SURLASANG Ga-on IH Noodle One Handle Pot 가온 IH 누들 편수 냄비 PINK/GREEN -\$35.99 \$25.99 18 CM EA</p>	<p>HELLO HOME Faux Fur Suede Slippers 헬로홈 스웨이드 털 슬리퍼 MEN - CHESTNUT/BLUE (XL, XXL) WOMEN - PINK/YELLOW (M, L) -\$9.99 \$4.99 PAIR</p>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u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athy@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a@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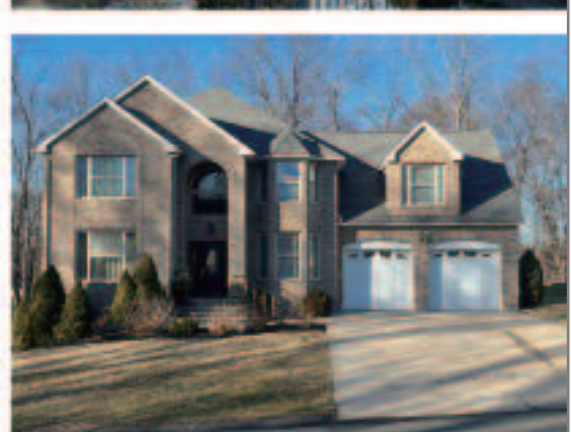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hinbo@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박성순
617.538.6973
ps@bostonpremierrealty.com



다혜연 김
617.217.2037
daehyeon@bostonpremierrealty.com



정은
987.694.2043
jeun@bostonpremierrealty.com



나리 박
617.447.0591
nari@bostonpremierrealty.com



지두 박
617.780.7839
jide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리
978.866.3248
jina@bostonpremierrealty.com



이곤 김
617.543.5728
egon@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김
617.89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희길 김
617.877.0387
heegil@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정
617.538.6973
sojeong@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수
481.935.3397
eonsoo@bostonpremierrealty.com



미소 리
213.503.0397
mi-soo@bostonpremierrealty.com



미카 리
413.507.1402
mika@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순
781.800.3412
eonsoon@bostonpremierrealty.com



선길 리
781.690.4309
seon-gil@bostonpremierrealty.com



한세욱
781.999.5214
hanseok@bostonpremierrealty.com



차은경
617.515.1102
eun-gyeong@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송
617.960.6655
grace@bostonpremierrealty.com



래이얼 송
617.852.7485
rae-eul@bostonpremierrealty.com



선강 리
617.913.3369
sun-gang@bostonpremierrealty.com



길기태
617.721.8088
gil-ga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연 유
617.935.2713
bi-byu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Song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0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i Wang
617.938.7212
lili@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8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dfolk
917.224.59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e
857.210.881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992.1191
ritika@bostonpremierrealty.com



Ben Florentino
617.775.9538
ben@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e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558.0409
jake@bostonpremierrealty.com



이성현
857.280.0434
seung-hyun@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sasha@bostonpremierrealty.com



Anthony Tran
857.208.4859
anthony@bostonpremierrealty.com



2022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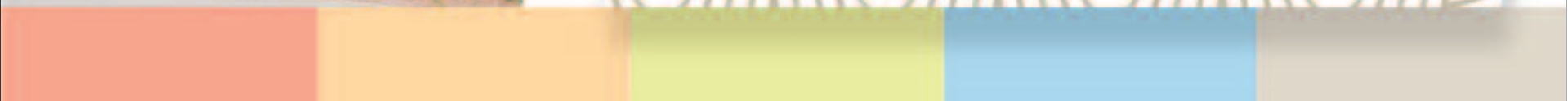
다가오는 2023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리미어 부동산 일동 올림 -



일본 대지진 뛰어넘은 참사...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2만명 넘겨

"최대 20만명, 여전히 잔해에 갇혀"...튀르키예 "구조 인력 11만명 투입" 기적 같은 구조 소식 잇따라...시리아 반군 지역에도 첫 국제 구호 손길

(로마·테헤란=연합뉴스) 신창용 이승민 특파원 =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9일(현지시간) 2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1만8천500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대 20만명의 시민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인명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지진 발생 나흘째인 이날 누적 사망자가 1만7천134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혔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는 3천162명으로 늘어났다. 두 국가를 합친 사망자는 2만296명에 달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가 최악의 경우 2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캐서린 스몰우드 WHO 유럽지부 선임비상계획관은 다음 주부터 사망·부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금주에 벌써 사망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일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들이 무너져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14%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지진 과학자인 오브군 아흐메트는 붕괴한 건물 아래에 갇혀 있는 시민들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흐메트는 "세계는 이런 재난을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구조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한 매몰자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72시간으로 보고 있다.

일란 켈만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재난보건 교수는 "지진 생존자의 90% 이상이 72시간 이내에 구조됐다"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경우에는 눈과 비를 동반한 영하의

날씨 탓에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72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속에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튀르키예 국영 방송 TRT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 아디야만에서 6개월 아기가 무너진 아파트 잔해에 갇힌지 82시간 만에 구조됐다. 이에 앞서 안타키아에선 2세 남자아기가 79시간 만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날 기준 11만명 이상의 구조 인력과 5천500여대의 중장비가 지진 피해 지역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전 세계 56개국에서 파견된 6천479명에 달하는 해외 구호대도 현지에서 구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조를 위해 급파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도 활동 개시 첫날 5명을 구조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까지 한마음으로 튀르키예에 구호대를 보내 구조 활동에 착수했다.

AP 통신은 "아직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영하의 날씨 속에 구조대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동차와 임시 텐트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 임시 거처에 머무는 이재민은 75만명을 넘겼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많은 생존자가 지금 끔찍한 여건에서 아외에 머물고 있다"며 "수색·구조작업과 같은 속도로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2차 재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도 상당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40억 달러(약 5조원)로 추산하면서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구호 사각지대'로 꼽혔던 시리아 서북부 반군 장악 지역에는 이날 도움의 손길이 처음 닿았다.

로이터·AFP 통신은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이 시리아 서북부 국경을 넘어 반군 장악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전 세계 95개국과 16개 국제단체가 지원을 약속한 튀르키예와 달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시리아는 상당수 국가로부터 직접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9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일대에서 한국긴급구호대(KDRF) 대원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 있던 어린이와 시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10개 주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낳았다. 건물 6천444채가 무너지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극한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집을 잃은 지진 생존자들은 눈과 비를 동반한 영하권 날씨 속에서 자

특히 다마스쿠스 공항을 통한 인도주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반군 장악 지역은 '구호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changyong@yna.co.kr, logos@yna.co.kr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톤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광고를 보는 한국연변진흥재단의
정보권과 수익권을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정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Church of Boston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 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교사 / 학생 모집
[교사 모집]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2022-2023 등록 안내]
등록금 330불+등록비 20불
(한 자녀 330불, 두 자녀 640불, 세 자녀 950불)
*8월 14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문의: 교장 전화: 617-610-2743
이메일: BostonCatholicKoreanSchool@gmail.com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를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FEB. 9TH - FEB. 16TH, 2023

\$13.99
BOX

← Reg. \$22.99



950 mL
검은콩 고칼슘두유가
하나 더!



베지밀

검은콩 고칼슘두유

Vegemil Black Bean Soymilk High Calcium

190 mL x 24 EA + 950 mL x 1 EA/BOX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23) ETF(Exchange Traded Fund) 투자

정확히 30년(1/22/1993) 전 ETF 투자가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출시되었다. 필자는 한 컬럼(10/9/2016)에서 ETF의 규모가 \$2.2 trillion으로 성장했으며 일반 투자자는 ETF를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현재 ETF의 규모는 \$6.5 trillion이라고 월스트리트지(The first ETF launched 30 years ago, revolutionizing investing, Jack Pitcher, WSJ, Jan. 22, 2023)는 발표했다.

ETF의 유익한 점은 세월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다. 주식 투자하는데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분명한 투자 방향: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에 의해서 투자종목이 결정된다. 한 예로 어떤 뮤추얼 펀드의 투자 방향은 외국 기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고전한다. 같은 시기 미국 기업의 주식은 상승하는 분위기이다. 펀드 매니저는 떨어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국내 기업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변형된 투자

방향으로 일반 투자자는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S&P 500 ETF는 주식가격 규모로 큰 500대 기업에 투자한다. 한 마디로 단 \$1,000을 투자해도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액산&모빌, 존슨&존슨, 등과 같은 회사에 투자되는 것이다. REIT ETF에 투자하면 부동산에 관계된 167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며 Total Bond Market ETF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 10,000종류 이상에 투자가 된다. 나의 투자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적은 경비: 뮤추얼 펀드에는 재정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있는데 4%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부과되는 투자비용은 재정문서에 나오지도 않고 재정설계자도 말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투자자 각자가 숨어 있는 비용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어떤 투자자는 투자 비용이 부과되면 그만큼 값어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 뮤추얼 펀드의 수수료

(Load)와 수익률은 100% 상관이 없다.

ETF는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경비도 매우 저렴하다. 벵가드 S&P 500 ETF의 경비는 단 0.03%이다. 투자 \$10,000에 부과되는 비용이 한 해에 단 \$3이라는 뜻이다. 남에게 한 푼이라도 주지 않으면 그만큼 나의 호주머니에 남아 있는 것이다.

세금 효과: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가 사고 팔지 않아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끊임없이 사고팔기 때문이다. 이것을 턴오버(Turnover)라고 한다. 새해에 투자했던 주식의 연말에는 100% 변할 수도 있다. 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면 투자자가 펀드를 판다. 팔고 나가는 투자자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만 한다. 이처럼 일반 투자자는 투자 손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연말에 많은 세금도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ETF는 사고파는 횟수가 매우 적기에 발생

하는 세금이 거의 없다.

결론: 작년(2022)에도 ETF에 새롭게 투자한 돈이 약 \$600 billion이며 뮤추얼 펀드에서 빠져서 나간 돈이 약 \$960 billion으로 거의 \$1 trillion에 육박한다. 투자자가 ETF로 물리는 이유를 일반 투자자는 생각해 봐야 한다.

ETF 투자의 95%, 대부분이 패시브(Passive) 투자이다. 그러나 최근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액티브(Active) ETF가 431개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ARK Innovation 같은 ETF이며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70% 대폭락했다.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처럼 액티브 ETF에 투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ETF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필자의 개인 자산이나 모든 고객의 자산도 ETF에 투자하고 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란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7)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서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대개 적賊들의 모의가 이미 치밀했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먼저 알면, 당시 역모 직전의 긴박한 상황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명태후는 김서현의 딸로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이다. 김춘추와 혼인하여 654년 왕후가 되었다. 661년 태종무열왕이 사망하자 그들의 아들 법민이 문무왕으로 즉위하였고 그녀는 태후로 20년을 더 살고 681년에 사망하였다. 김서현에게는 문희 외에도 보희와 정희(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정희의 기록이 없다) 두 딸이 더 있었다. 보희는 '왕비가 될 꿈'을 동생 문희에게 팔면서 왕비가 될 꿈은 꿈이 되었지만 나중에 무열왕의 후궁(영창부인)이 되었다. 정희는 내물왕의 계손 집찬(3등급) 김달복과 혼인하여 2남(흠운과 흠돌) 1녀(흠신)를 두었다.

김법민은 제30대 문무왕으로 661년에 즉위하였고, 왕후는 자의慈儀이다. 자의의 부모는 21세 풍월주를 역임한 김선품과 보룡이다. 선품은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병을 얻어 돌아와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 청상과부가 된 보룡은 네 자녀들을 데리고 김춘추의 집에 유모로 들어갔다. 그때 데리고 간 자녀들이 장녀 자의, 차녀 운명, 삼녀 아명과 아들 순원이다(삼국유사에는 순원의 동생 작진酌珍425) 이 등장한다. 자의는 김춘추의 아들 법민과 혼인

하여 661년 왕후가 되었고, 그들은 두 아들 소명과 정명을 두었다. 소명태자는 665년 조졸하였고, 정명은 681년 신문왕으로 즉위하였다. 운명은 28세 풍월주를 역임한 김오기와 혼인하여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을 낳았다. 아명은 문무왕의 후궁이 되어 인명전군을 낳았다. 681년 김흠돌이 바로 이 아명의 아들 김인명을 왕으로 옹립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아들 김순원은 698년 시종에 올랐다가 곧 '경영의 난'에 연좌되어 파면 당했으나 후일 중앙정계로 복귀하였다. 딸이 성덕왕의 왕후(점물왕후)가 되어 아들들을 낳으니 그들이 제34대 효성왕과 제35대 경덕왕이다. 또한 순원의 아들 김진종이 딸을 낳아 효성왕의 왕후가 되었다.

당시 신문왕의 왕후 김씨는 김흠돌의 딸인데 왕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신문왕은 태자일 때 어머니 자의와 함께 형수가 될뻔한 소명공 426)을 자주 찾아 위로하다가 정이 들었고, 결국 그들은 아들들을 낳았다. 흠돌의 난이 일어나면서 왕후를 폐하고 소명공 김씨를 왕후로 맞았다. 그녀가 신목왕후이며 장남 김이공(김이흥)이 제32대 효소왕이고 차남 김용기가 제33대 성덕왕이다.

425) 삼국유사의 기록을 간추리면 김작진 金爵珍이 왕고파리王岐巴里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 각간 원선元善을 낳았는데, 그가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이다. 작진의 아버지는 파

진찬 선품공이며, 선품은 구륜의 아들이다, 구륜의 부모는 제24대 진흥왕과 사도왕후이다.

그럼 화랑세기의 기록을 본다. 김선품의 부모는 구륜과 보화공주이다(보화의 부모는 진평왕과 미실이다). 구륜의 부모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이다. 즉 선품의 부모와 조부모 기록은 삼국유사와 동일하다. 그런데 김작진의 기록은 없다. 김선품은 643년에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죽었다. 작진이 아무리 늦게 태어나도 644년(유복자라 하더라도...) 이전에 출생해야 한다. 작진이 아들 원선(아자개) 낳고 원선이 견훤을 낳았으니, 견훤은 작진의 손자이다. 그런데 견훤이 877년에 태어났으니 조손祖孫의 출생연도가 최소 224년의 차이가 난다. 그냥 선대 조상이라면 받아드릴 수 있지만, 작진->아자개->견훤으로 이어지기에 불가능하다.

426) 소명공 김씨는 흠돌의 형(또는 동생) 흠운의 딸로 소명태자와 정혼을 했었는데, 태자가 조졸하는 관계로 '혼전과부'가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죽은 소명태자의 제주祭主가 되길 청하였고, 자의왕후가 허락하여 소명궁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UCKOO



금액별 · 수량별 스페셜 사은품 선정

두근두근 2월의 선물박스

기간 | 01.28.2023 - 02.24.2023 조건 | 기간 내 주문 & 2월 내 설치

1건
가까운 매장 방문
또는 쿠크렌탈을
검색해보세요

3건
\$400 상당
스페셜 사은품

2건
\$250 상당
행운의 사은품

온라인 혜택

인기 정수기 **15%~20% 할인**

번들 서프라이즈

1대 + 번들제품 구매 시
50% 적용

번들제품 : 일부 공기청정기, 비데, 비물쿨러저

Cuckoo Boston 617-879-2725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원에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크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에 문의하세요.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종과 필드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 온라인 혜택 정수기 : 언디싱크, MN/TN/P모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Updates (2023년 2월 2째주)

1. 2023년 H-1B 비자 Update 1 (3월1일 추첨 신청 개시)

이민국은 2023년도 H-1B 추첨 등록신청 (“추첨신청”) 을 3월1일부터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3주간 등록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몇일 적은 3월17일 오후 12 (Noon, 미동부시간)에 등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3월17일까지 추첨을 할 충분한 수의 신청서들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3월17일 이후에도 추첨신청을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등록비는 변동없이 \$10 입니다.

수년간 추첨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3월1일 시작과 동시에 신청해야 선택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 사람들이 제일 등록을 알하는 2주차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공식적으로 H비자 추첨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 맞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으며 오히려 서류 준비 잘하셔서 추첨신청을 기간내에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년, 운 좋게 추첨에 통과해도 경미한 실수 하나로 H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예를들어, 생년월일, 회사 세금번호, 주소 등에 한두가지 글자나 숫자를 잘못 기재해 실제 신청 시 추첨통과 케이스와 동일하지 않은 케이스로 신청

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추첨신청 후에 이러한 실수를 발견할 경우, 추첨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신청을 마감일에 임박해서 한 경우, 재신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마지막 1-2일은 신청이 몰려 신청에 몇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추첨신청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신중 영주권 사기 (유학생 영주권)

미국 유학생들과 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소위 “유학생 영주권” 이라는 이름으로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는 사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미국에 유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영주권 없이는 미국의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계시고 실제로 영주권 없이는 취업 등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 투자이민의 투자금액 인상과 적체, 고환율 등으로 투자이민 보다는 다른 경로로 영주권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생 영주권’ 은 이런분들에게 귀에 번뜩이는 소재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이든 아니든 미국에 작게 가족이 없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은 취업, 시민권자와의 혼인 또는 투자 등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이 소위 ‘유학생 영주권’ 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실제로 Special Immigrant Juveniles 이란 제도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21세 미만인 미혼자가 부모로부터의 남용 (Abuse), 포기 (Abandonment), 소홀 (Neglect) 등의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들을 정부기관이나 가디언 등의 보호 안에 두게 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보호 하에 있는 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취업등의 절차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세미나나 설명회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 자격조건 중 결혼이나 취업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낸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미나나 설명회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유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미국밖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들의 남용, 포기, 소홀 등을 거짓으로 증명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가디언들은 섭외가 어렵지 않고, 대부분 유학생들이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만 잘 받아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약 1-3억 사이를 요구한다고 하니 부모입장에

서는 투자이민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인된 영주권의 수가 많아지면 언제가는 이민국이 이를 인지하게 되고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관련 비자/영주권 사기 신청이 그랬고, H비자 추첨 관련 이중 등록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민국은 대대적인 조사를 한 전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수익을 위해 계속해서 법원에 거짓 자료들이 제출할 것이고, 한국 국적자들의 이 방법을 통한 영주권 취득 수가 늘어나면 이민국에서는 왜 한국과 같은 선진국 국적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지 등 이민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을 너무나 많습니다.

전수 조사가 이뤄지고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발견되면 이러한 업체 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청된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을 조사해 불법성이 발견되면 그들의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당부드리며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하셔서 자녀분들이 갑자기 추방당하는 일은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2월 12일 - 2월 1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필연적인 느낌을 주는

● 운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조금만 발품을 팔면 좋은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활동에 박차를 내보세요. 모처럼 여유 있게 웃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꼭 만나야 될 인연을 하늘이 묶어줄 것입니다. 우연보다 더 강한 필연적인 느낌을 주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2, 15일 길일. 14, 17일 주의.

소띠 | 삶이 알려주는 신호를

● 운수: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면 빨리 쉬거나 약을 복용하세요. 무리하고 버티다가는 큰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금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삶이 알려주는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손해 보게 됩니다. ● 애정: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사에 차신을 잘해야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2, 16일 길일. 15, 18일 주의.

범띠 |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 운수: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의 이익보다 여러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면 결국은 자신에 득이 됩니다. ● 애정: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누구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5, 17일 길일. 14, 16일 주의.

토끼띠 | 애정이 샘솟는

● 운수: 이제는 노선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걸어오던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거래처도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지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 시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고 한사람의 말만 들릴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3,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용띠 | 열린 마음으로

● 운수: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결코 배반하지 않는 좋은 결과로 담해줄 것입니다. ●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내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욱 더 가까워집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3, 16일 길일. 12, 18일 주의.

뱀띠 |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 운수: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도 때가 아니면 잘 되지 않고 지치기만 합니다. ● 금전: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푸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 보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여지게 설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2, 17일 길일. 13, 14일 주의.

말띠 | 한 걸음 내딛기 전에

● 운수: 지금은 적진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더 통할 때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 전에 미리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아무리 급하더라도 미리 만약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화위복으로 이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 애정: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새롭게 보이고 알게 되는 것이 더 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3,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양띠 |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 운수: 정확하게 사태 파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빨간 신호 등으로 바뀌진지도 모르고 건너가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금전: 내 뜻과는 반대로 가기 쉽습니다. 잘되겠지 믿거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 애정: 너무 깊이 알고 싶지 마세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6, 18일 길일. 12, 14일 주의.

원숭이띠 |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 운수: 어수선하고 안정이 되지 않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전: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미리 발견할 수 있으니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 애정: 가족 간에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닭띠 | 선 기기를 잘해야

● 운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빼놓고 다닐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선기기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무르게 대응하면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 애정: 부부문제나 이성문제에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괜히 말해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

개띠 | 인생을 바꿀만한 천금 같은 기회

● 운수: 어느 날 급작스럽게 사고가 찾아오듯이 인생을 바꿀만한 천금 같은 기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 금전: 매상이 떨어져서 고민하던 사람도 돌아가는 상황이 나아지면서 얼굴이 밝아 집니다.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니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 애정: 일과 사랑을 동시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돼지띠 | 환하게 웃어야 밝은 내일이

● 운수: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금전: 신통치 않은 매출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힘수룩 환하게 웃어야 밝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 애정: 하루라도 빨리 관계의 끈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대로 질질 끌려가다가는 결국 상처만 커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미들턴 드라이클리너에서 셔츠 프레스 경험자 구합니다.
시간 오후 3시-7시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덴탈 랩 매매합니다.
Tel. 508-215-9122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TXT, 빌보드 앨범 차트 1위...K팝 그룹서 다섯 번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다섯 번째 미니음반 '이름의 장 : 템프테이션(TEMPTATION)'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5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9년 3월 이들이 데뷔한 지 3년 11개월 만이다.

이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미국에서 16만1천500장에 상당한 음반 판매고를 올렸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산정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앨범 판매량은 15만2천장, SEA는 9천장, TEA는 500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앨범 판매량 15만2천장 가운데 98%인 14만8천500장은 CD(실물 음반)로 조사됐다.

빌보드는 "'이름의 장 : 템프테이션'은 포토카드와 포토북 등 무작위 요소가 포함된 총 14종의 수집 가능한 패키지로 발매됐다"며 "CD 판매량은 또한 온라인 판매처를 통한 사인판 판매로 힘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빌보드 200' 1위를 밟은 한국 가수는 방탄소년단(BTS·2018년), 슈퍼엠(2019년), 스트레이 키즈(2022년), 블랙핑크(2022년)에 이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다섯 번째다.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소속사 빅히트뮤직(하이브)은 빌보드 메인 차트에 두 팀 이상의 가수를 1위



에 올려놓은 유일한 국내 가요 기획사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름의 장 : 템프테이션'은 마치 피터 팬처럼 소년으로 남고자 하는 유혹에 맞선 청춘의 이야기를 풀어낸 앨범이다.

타이틀곡 '슈거 러시 라이드'(Sugar Rush Ride)를 비롯해 '데빌 바이 더 윈도우'(Devil by the Window), '해피 폴스'(Happy Fools), '네버랜드를 떠나며' 등 다섯 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슈거 러시 라이드'는 얼터너티브 팝댄스 장르의 곡으로 감작스레 주어진 자유와 유희라는 악마의 유혹을 달콤함으로 인해 기분이 들뜬 상태인 '슈거 러시'에 빗대 표현했다.

멤버 휴닝카이는 지난달 26일 신보 발매 쇼케이스에서 "꿈은 크게 가지면 좋으니 이번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빌보드 정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번 음반은

일찍이 선주문량이 200만장을 넘기고, 팬덤의 크기와 인기의 척도로 받아들여지는 첫 주 판매량 역시 200만장을 넘기는 등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또 보이그룹으로는 쉽지 않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톱 100'의 최상위권 진입도 성공했다. 신곡 '슈거 러시 라이드'가 국내·외 팬덤과 대중 모두의 선택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김도현 대중음악평론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서사를 굉장히 잘 갖추면서 그 서사를 음악적으로 잘 구현하는 팀"이라며 "이 덕분에 글로벌 팬덤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Z세대를 겨냥한 공감의 메시지를 음악에 담는다"며 "이번 음반도 '방향' 같은 키워드가 이들을 지지하는 팬덤이 좋아하기에 좋은 서사다. 롤라팔루자 등 대형 음악 축제에 참석하는 등 해외 활동을 이어온 것도 좋은 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BTS '프루프' 빌보드 앨범 차트 34주 연속 진입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해 발표한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4주 연속 진입했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프루프'는 '빌보드 200'에서 전주보다 16계단 오른 102위에 올랐다.

리더 RM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첫 공식 솔로 음반 '인디고'(Indigo)는 '월드 앨범' 7위, '톱 커런트 앨범' 20위, '톱 앨범 세일즈' 35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솔로 첫 주자로 나선 제이홉의 '잭인더박스'(Jack In The Box)는 '바이닐 앨범' 4위, '월드 앨범' 5위, '톱 커런트 앨범' 11위, '톱 앨범 세일즈' 14위로 조사됐다.

지민이 가수 태양과 호흡을 맞춘 디지털 싱글 '바이브'(VIBE)는 '월드 디지털 송 세



일즈' 9위, '글로벌'(미국 제외) 63위, '글로벌 200' 95위를 차지했다.

정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 '드림머스'(Dreamers)로 '글로벌'(미

국제외) 139위,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와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로 같은 차트에서 168위에 올랐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산이야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

뉴잉글랜드 지방(보스톤 주변)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날이다. 사계절을 만나고 느끼고 만끽할 수 있음이 생각을 거듭할수록 축복이라 여겨진다. 우리는 가끔 나아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때가 많다. 이 부러움마저도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모티브가 되면 더욱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미 내게 있는 것마저도 찾지 못해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다. 자신과 늘 가까이 있는 것들을 하나둘 찾아보면 곁에 소중한 것(사람과 사물과 장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귀한 것들을 큰 것을 찾다가 그만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가끔 나는 부엌 창문에서 내다보이는 풍경들에 한참을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 바라다보이는 나무를 정해놓고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눈여겨보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지 감동을 넘어 연신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봄이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잎이 푸르러 싱그럽을 선사하고 가을이면 고운 단풍물로 유혹하며 겨울이면 백색의 세상으로 가득 품어주는 것이다. 물론 카메라 렌즈를 통해 계절마다 풍경을 사진으로 담기를 좋아하지만, 그 이전에 내 눈 안에

득 들어온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산이야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

봄이 오는 소리에
눈을 뜨니 이미 겨울 속에서
산속 생명들은 하나 둘
봄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산이야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
산 아래서 산 위의 것을
걱정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마음 하나 챙겨 오르면 될 것です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 먼 산만 바라보며
마음을 보채고 가슴을 조아리며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산이야 언제나 그곳에 있으니
마음 안에서 가슴 속에서
염려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발걸음 옮기며 오르면 될 것ですよ

산 아래서 산 위의 것을
마음을 보채고 가슴을 조아리며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산이야 언제나 그곳에 있는 것ですよ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작은 나를 만난다.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신비로움을 체험하며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과 피조물인 인간을 잠시 생각한다. 또한 산을 오르는 내내 가파른 산길 굽이굽이마다 힘겨워 헉헉거리는 고비고비마다에서 인생을 생각한다. 산을 오르내리며 내 삶의 발자국들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책임감을 배우는 것이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작은 나를 만난다. 산은 오르면 오를수록 산은 높아지고 나는 더욱 낮아지는 것이다.

산은 언제나 계절마다에서 변함없이 한 곳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품어주는데, 산을 오르며 이것은 좋으니 저것은 싫으니 더우니 춥니 타박을 하는 것은 바로 산을 오르는 나 자신이다. 참으로 아이없음이다. 제 기분

에 따라 이리저리 마음을 정하니 말이다. 이렇듯 기분이 좋아 산을 오르고 기분이 나빠 산에 오르다 보면 그 좋고 싫음의 감정은 사라지고 어느새가 정상을 향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우치는 시간이다. 누가 가라고 해서 산을 오를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 해서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님을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의 해본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간에 제 기분에 따라 좋고 싫음을 저 홀로 정해놓는 것은 아닐까 싶다. 상대방은 산처럼 여전히 한 자리에 있는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상대방을 탓하는 것은 아닐는지 잠시 생각해 머물러 본다. 서로 대화의 시간이 적고 그러다 보니 가까운 사이라도 속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어 서운하고 소통이 어려운 것이다. 서로 서운한 마음의 양극이 남아 있으니 이해하기란 더욱 어렵고 결국 불통에 묶여있는 것이다. 불통의 열쇠는 결국 신뢰이고 소통의 통로는 대화인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망치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누굴까.
맨 처음 쇠를 구워보자고
생각한 사람은.
...
힘찬 손놀림으로 불과 냉수 사이를
오가며 아름다운 금속 물질을
단련시킨다.

그것은... 강철이다.
(정한아, 대장장이)

쇠를 다루는데는 망치가 필요하다. 내 국민학교 시절 자연과목이다. 망치가 시험문제로 나왔다. 못을 박고자 할적에 망치자루 어느 부분을 잡아야 효과적인가? 1.

자루 끝, 2. 자루 중간, 3. 아주 짧게, 4. 어디를 잡건 상관 없다. 난 답을 2번으로 했다. 중간이라 했으니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정답은 자루를 길게 잡아야 한다. 힘을 적게 들고 쉽게 못을 박을 수 있다는 거다. 난 대장장이가 되긴 애당초 틀렸다.

망치나 함마는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에도 나온다. 대장장이가 쇠를 다루는 모습인데, 쇳덩이를 두드릴적에 어깨 근육이 출렁인다고 했다. 노동하는 근육속에 철물이 각인되었다고도 했던가. 낱쇠, 소설 속에 나오는 대장장이 이름이다. 역시 쇠를 다루는 직업과 일치한다. 서양식 Smith란 이름과

통한다고나 할까.
연단鍊鍛이라 한다. 쇳덩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 단단하게 함. 이 말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두드려 연단하는 일 역시 대장장이 몫이며 쇠를 두드릴 적엔 망치를 쓴다.

어디 망치뿐이라. 장도리도 있고 오펜도 있다. 오펜은 무거운 망치다. 하긴 가벼운 숭방망이도 있다. 가벼운 처벌이라 하던가.

옛날 가야적 대장장이도 날쇠라 불렀을까. 아니 생쇠라 할수도 있겠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바위를 쳐서 부수는 망치 같지 않은가? (에레미아23:29)

한반도엔 가야제국이 있었다. 가야는 유난히 철과 친했고,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한다. 분명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도 있었을 터. 오늘날이면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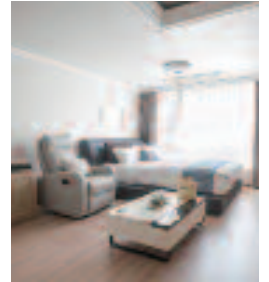
스미스, 미국에서 흔한 성씨 중 하나일 게다. 마치 한국 김씨처럼 말이다. 원래 스미스의 뜻은 대장장이라 하던가. 한국이나 서양이나 대장장이는 오래된 직업군이다.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묘년 새해엔 혈관과 관절 건강, 두 마리 토끼 잡아야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다. 토끼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각종 설화를 통해 불로장생의 영물로 전해져 온다. 보름달이 뜨면 달 속에서 불사의 영약을 찌는 옥토끼를 찾고 건강을 염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토끼의 해에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H+ 양지병원 3분의 전문의와 함께 혈관과 관절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고자 한다.

심뇌혈관질환 다스리는 첫번째 토끼 '혈관 건강'

혈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심장과 뇌 질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으로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두 질환 모두 혈관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이라고 통틀어 부르기도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암을 제외한 주요 만성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심장 질환이었으며 인구 10만명당 61.5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폐렴과 함께 뇌혈관 질환이 44명으로 높았다.

대표적인 심장 질환으로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이 있으며 뇌혈관 질환으로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 이들 모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성 질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대사성 질환이 있으면 혈관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염증이 생기는데 방치하면 혈관벽이 터져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혈관이 막히며 뇌가 손상되는 뇌경색과 혈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뇌출혈은 뇌졸중이라고도 통칭하는데 뇌경색이 약 85%로 뇌출혈에 비해 많다. 혈압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과도한 음주나 심한 스트레스로도 뇌졸중이 촉발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추운 곳에 노출되거나 심한 운동과 탈수로도 발생할 수 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사람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급성 뇌경색은 골든타임 안에 뇌혈관중재술 등 관련 응급 치료를 받아야 마비 또는 언어 장애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뇌졸중 전조증상으로는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팔과 다리에 편측 마비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의식장애나 복시 등 시야장애도 발생한다. 보행장애와 어지럼증, 균형장애, 원인 불명의 통증 등도 의심 증상이다. 편측 마비와 의식 장애 증상은 바로 응급실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비교적 경미한 두통과 어지럼증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

다. 전조증상이 발견되면 뇌졸중 예방과 선제적 치료를 위해 MRI 검사 등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강충강충 힘차게 뛰어오르는 두번째 토끼 '관절 건강'

올해는 코로나19가 엔데믹 단계로 접어들며 여행이나 스포츠 등 각종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 인대나 연골 등이 손상되면 온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절 질환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골관절염이다.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며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척추나 고관절, 손가락 마디에도 발생하며 척추에 발생할 경우 허리디스크로 오인하기도 한다. 고관절에 발생한 경우에는 통증과 함께 걸음걸이가 어색해져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부르지만 반드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족력이나 비만, 외상, 염증 등이 원인이 되며 관절의 무리한 사용과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외상으로 젊은층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병증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 404만명을 넘어섰으나 2020년 코로나 19 발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 2020년

382만명, 2021년에는 399만명에 이르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약물과 물리, 운동 등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개선하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연골이 너무 많이 손상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등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체중 부하가 실리는 동작을 주의해야 한다.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거나 과체중 등이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동작들을 피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과 관절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 금연을 실천하고 음주를 줄이며 저염분의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식사 습관을 가진다. 하루 30분, 주 4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근력운동으로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계묘년 새해엔 혈관과 관절 건강, 두 마리 토끼 잡아"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계묘년 건강, 두마리 토끼 잡기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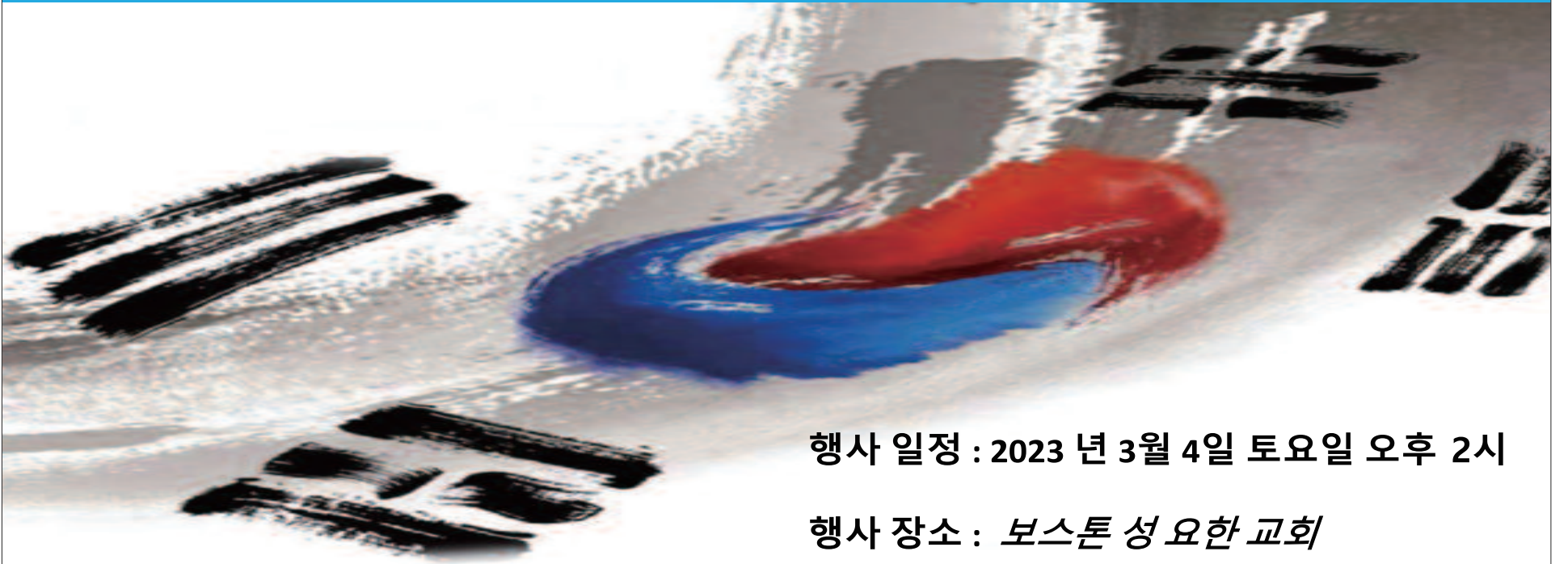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104주년 3.1절 기념행사





1919.3.1 - 2023.3.1



행사 일정 :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행사 장소 : **보스톤 성 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Zoom ID : 785 059 1183

- 행사 주최 :
-  매사추세츠 한인회
 -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  뉴 햄프셔 한인회

행사 협찬 : **보스톤코리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매사추세츠 한인회 총회 공고

매사추세츠 한인동포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영을 기원 합니다. 아울러 제 42대 매사추세츠 한인회 회장 장 영수 이하 임원들 인사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한인 회칙 제 4장 12 조에 의해, 2023년 총회를 소집 하며, 일정과 주요 안건을 공지 합니다

주요 안건

일정: 2023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보스톤 성 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 2023년 한인 회장, 이사장, 임원진 인사
- 2022년 한인회 재무 감사보고
- 2022년 한인회 사업보고
- 2023년 한인회 예정 사업보고
- 기타 안건

2023년 제 42대 한인회는 더욱더 화합하고 2세, 3세가 참여할수 있는 장을 열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꼭 참석 하시어 한인회가 성장할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주시요

총회 당일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임원진 일동

협찬 **보스톤코리아**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World Headquarters
Long Beach, California

터보에어 서비스 테크니션 직원 모집

세계적 상업용 냉장고 제조사로서 성장한 터보에어 그룹은 미국 시장 2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위 달성을 목전에 두고,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정과 성실을 겸비한 **서비스 테크니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분야의 관심과 재능 있는 분”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무경험자도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사내 기술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합니다.

기술을 습득하시면 어떤 불황에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미국 생활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 근무지역: 미주 전 지역 Orlando FL / San Francisco CA / Greensboro NC / Mobile AL / Boston MA
- 혜택 의료보험 (Medical, Dental, Vision), 유급휴가, 통신비 지원, 이사 비용 지원, Cash matching program 등
- 연락처 Email. kay@turboairinc.com Tel. 305-397-0793 (Text only. 562-922-4141)